

지난 12월 6일, 협회 전 결핵연구원장을 지낸 김상재 명예원장이 대한보건협회가 수여하는 2013 보건대상을 수상했다. 김 원장을 만나 그간의 근황과 결핵 분야의 원로로서 우리나라 결핵퇴치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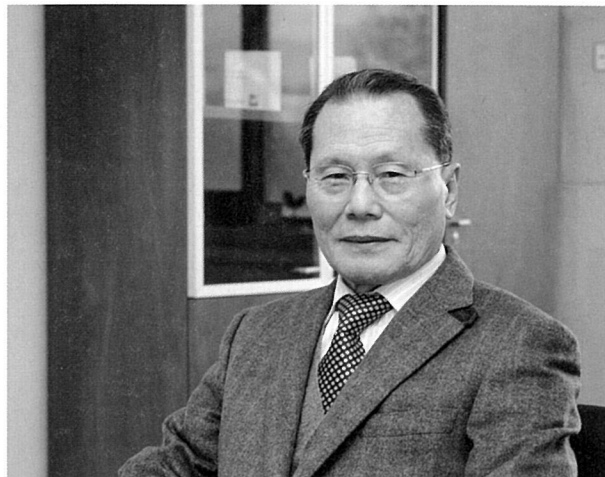
WHO 자문위원 등 결핵 분야서 왕성한 활동

2013 보건대상 수상한 김상재 명예원장



Another future
with a little further!

함께하면 한 뼘, 돌이하면 두 뼘
결핵균 바이러스, 우리 모두가 대상입니다.
서로의 간격, 두 뼘만큼 유지해주세요!



2013 보건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이 주어졌는지 모르겠다. 곰곰 생각해보니 오랫동안 결핵퇴치사업과 WHO 활동을 해왔다고, 수고했다는 의미로 주는 상이 아닐까 싶다.

최근 근황

이젠 나이도 있고, 올 초부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대외활동을 줄이고 있는데, 특별히 김성진 전 결핵연구원장, 홍영표 전 회장, 박종달 전 부회장 등 옛날에 함께 활동했던 분들과 함께 대한결핵협회 60년사 편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장인 김성진 전 연구원장은 우리나라 결핵 관계에 가장 큰 어른이고 산 증인인데, 이분을 필두로 해서 50년사를 바탕으로 빠진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협회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결핵사나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50년사가 무척 잘 돼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결핵퇴치사업에 있어 WHO와의 관계, 다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해외 지원사업 및 국제연수과정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함께 일했던 분들과 때때로 한 차례씩 만나 그 시절의 얘기를 나누니 감회가 새롭다.

우리나라 결핵관리 현황

매체에 알려진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병, 사망이 가장 많은 국가다. 나는 1965년 협회에 입사해 제1차 결핵실태조사에 투입돼 일했다. 1차 실태조사에서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가 5,065명이었다. WHO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재 결핵 유병률이 146명이니, 엄청나게 줄어든 거다. OECD 가입

국 중 1위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결핵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결핵환자 신고를 철저히 하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잠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향후 1~2년 안에 그 수치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결핵관리 방향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나

현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PPM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결핵사업에서 환자관리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초창기 결핵사업을 주도한 것은 누가 뭐래도 결핵협회이다. 기초를 세우고 법을 만드는 모든 단계에서 협회가 주도적으로 일했다. 또한 WHO가 가장 적합한 방법을 한국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했던 게 오늘날 우리나라 결핵퇴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우리나라가 이를 일찍 받아들이고 검사실을 기반으로 진단 및 치료, 추구검사를 했던 게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협회는 보건소 결핵관리요원, 검사요원을 채용에 보건소에 파견하고 보건소, 병의원 검사사업을 총괄했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검사를 해내는 감수성검사 기틀을 세우는 데 일조한 점은 지금도 뿌듯하다.

협회가 화려했던 과거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결핵사업을 먼저 찾아내 협회가 주도적으로 일한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